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적 추진…혁신도시 활성화”

김영록 지사, 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상생 강화

주차난 해소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을출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노조협의회 임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 △혁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 방안 △광주역~송정역 순환 열차 운영 △

학생 과밀화 해소 및 특성화 중학교 신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난 10여년간 혁신도시가 산업·문화·교육·의료·복지 인프라를 고루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2차 이전에서도 전남도·나주시·공공기관이 역량을 모아 세계 속 혁신도시로 도약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을출 의장은 “산규 기관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도와 나주시, 이전기관이 하나로 뭉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며 “특히 기존 공공기관 부설기관 이전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250억원 규모 발전기금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전국 최고의 정주환경을 갖춘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동조합협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도내에서 열리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과의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전남-경북 동서미래포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동서연대, 지방소멸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전남-경북 동서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공항 등 교통관문서 광주매력 알린다

광주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와 협약

광주공항과 톨게이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 관문에서 광주의 매력을 알린다.

광주관광공사는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공항장 이근수),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준영)와 함께 교통환경 개선과 방문객 수용 태세 강화를 위한 공동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5 광주방문의 해”와 ‘호남관광문화주간’의 상징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 관련 주요공공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공항·역사·톨게이트 등 지역의 주요 교통 관문에서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주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광주공항 내 환영 홍보물 설치, 기동·계단 랩핑 광고, 도착항 공기 안내 방송 홍보 메시지 송출, 셀프 키오스크 영상 홍보 등이 진행 중이며 김포·제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으로의 홍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을여름 보양식은 광주에서~ 원기충전 식도락 여행’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고, ‘안전운전! 졸릴 때는 광주에서 쉬어가세요’ 캠페인을 펼쳐 육로 관광객에게 광주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광주관광 사진전’을 공동 기획해 지역 관광의 다양한 모습도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관광공사를 비롯한 3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교통·홍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방문객들이 광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따뜻한 환영과 함께 광주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5 광주방문의 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형배,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케데헌법’ 발의

“K-콘텐츠 ‘세계화’ 전통문화와 함께할 때 지속가능”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사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대문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



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문화가 K

-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케이팝 대문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에 박중환 임명

의병정신 선양·역사문화분야 경험 풍부…내년 개관 준비 총괄

전남도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에 박중환 전 국립중앙박물관 나주 박물관장(64·사진)을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2년이며, 업무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선임 단장은 전남대 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과 나주박물관장을 지냈다. 의병정신 선양과 역사·문화 진흥 분야

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개관준비단장 자리를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저위로 지정하고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6명이 응모했으며, 8월 선발시험위원회 면접과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 단장이 최종 선발됐다.

개관준비단장은 박물관 운영·발전계획 수립, 의병 관련 전시물 수집과 전시 등 전



반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2026년 3월 박물관 정식 개관에 앞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박중환 단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의병정신의 숭고함을 기릴 수 있는 박물관의 초대 관장직을 맡게 돼 뜻깊다”며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을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문화 공동체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도·시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 모색

장흥 빠빠웅zip서 워크숍…우수사례 공유·정책 방향 논의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10일 장흥 빠빠웅zip에서 시군 생활인구 담당 부서장과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도·시군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생활인구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책 개념으로 도입됐다. 2024년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

개 시군(전남 16개군)의 생활인구 통계가 산정됐으며, 2026년부터는 보통고부세 산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생활인구 유입을 지역 활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시군의 특색 있는 생활인구 정책이 소개됐다. 장흥군은 행사 장소인 빠빠웅zip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형 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강진군은 푸소체함과 반값 여행, 강진품에는 군민 제도를 통해 체류

형 방문을 확대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화순군은 파크골프장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사례를 소개했는데, 타 지역 거주자 이용 확대와 함께 이용료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주목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생활인구는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22개 시군이 각자 특화된 정책을 발굴·추진해 전남 전역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축제,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인구 정책을 확대 발굴하고, 관계인구-생활인구-정주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

고의사고 아닌

고의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신고 : 국번없이 1332